

# 설립 40주년,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풍성한 성과

## 200 여명 회원들 로인대학 · 무용팀 · 밴드팀 · 장례봉사팀 등 운영

8월 10일, 길림성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회장 김병희) 설립 40주년 경축행사가 반석시홍광중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반석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박종수, 반석시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민족중요국 국장인 엄국동, 반석시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관광국 국장 로광위, 반석시 취재하진당위 서기 박일, 반석시 흑석진당위 서기 리해성 등 반석시 당위와 정부 관계 인사들과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며 중국조선족사학회 회장인 정신철,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전목회 회장 리창수, 전임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경제처 처장 최수남, 전임 반석시정협 부주석 지영호, 길림시조선족중예술관 부관장 리영일 및 반석지역 조선족 농촌의 촌서기들과 장춘시 쌍양구조선족로인협회,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화전시조선족로인협회, 영길현조선족로인협회 등 지역 형제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 1부 개막식에서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김병희 회장이 개막사를 했다. 그는 개막사에서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협회는 당의 민족정책의 인도하에, 반석시 당위와 정부 및 관련 부서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본 협회 역대 지도자들의 인솔과 전체 회원들의 꾸준한 노력하에 커다란 성과를



협회 지도부 성원들

안아왔다."고 전했다.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의 발기자는 조정순씨로 초창기 반석시의 조선족 로인 12명으로 설립된 독보조를 시작으로 시민정국에 정식으로 협회 등록을 했으며 후기 회원수가 200여명으로 늘고 270평방미터의 활동실을 갖춘 사회단체로 성장했다.

지금 협회는 200명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로인대학, 무용팀, 밴드팀, 탁구팀, 장례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조직해오고 있다.

다년간 협회는 선후로 30여만원의 자금을 투입해 무용복, 소품, 악기, 실의 발전기, 자동차 사무실비 등 물품을 구입해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왔다.

근년래 회원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협회는 문예공연, 운동회를 수차 조직해왔으며 80세 이상 고령 로인들의 집단축수연도 3차례 조직했다.

김병희 회장은 "특히 협회의 발전은

사회각계 애심인사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회원들의 사심없는 공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월 이후에만 해도 반석시홍광중학교 75기 81명 졸업생들과 천진천선국제해운그룹유한회사 총경리 심경철, 연태성신기계유한회사 총경리 안성웅 그리고 지영호, 조정자, 송대실, 조진욱 등 많은 사회각계 애심인사들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협회 110명 회원들의 헌금까지 포함 10만원이 마련되었다.

김병희 회장의 개막사에서 이어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며 중국조선족사학회 회장인 정신철과 길림성조선족로인협회전목회 회장 리창수가 각기 축사를 했다.

정신철은 "로인은 경험과 년륜의 대명사로서 예로부터 가족과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다. 오랜 세월 동안 조선족은 로인을 존중하는 것을 가정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지극히 중요한 풍습으로 여겼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로인을 존중하는 좋은 기풍을 형성할 때 로인들도 사회를 행복하게 하고 민족에게 유익한 일을 하며 석양의 열정을 발휘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룬다.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의 40년도 바로 이런 실천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며 "나는 반석 사람으로서 고향 로인협회가 이룩한 성과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으며 또 이를 자랑스러워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리영복, 박복자, 림금선, 강봉수, 안창홍 등 5인을 모범회원으로 표창하고 반석시홍광중학교 75기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원 중국은행 길림분행 공회 주석 류재하가 기부금을 전달했다.

행사 2부에서는 반석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이 준비한 17개 문예종목을 선보였다.

악기부에서 공연한 기악합주 <제가 돌아왔다네>, 중년조의 소합창 <반석찬가>, 승리촌에서 선보인 무용 <행복아리랑>, 협회 지도부 성원들이 합주한 <그네 뛰는 처녀> 등 다채로운 공연은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행사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또 반석시홍광중학교 리홍광기념관을 참관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 교하 홍업곡관광지 전국 농촌관광 정품 로선에 입선



일전, 문화관광부가 82개의 '세시절령 자체향촌'(岁时节令 自在乡村) 전국 농촌관광 정품 로선을 출범한 가운데 교하 홍업곡관광지가 길림성에서 입선된 3개 로선중의 하나로 되었다.

홍업곡관광지는 국가 4A급 풍경구로서 2000년에 건설을 시작했는데 총면적이 5,201헥타르이고 홍업곡, 경령, 곡곡곡 관광지로 구성되며 경령할어거리와 연결되어 홍업곡을 주제로 하는 홍업관광, 삼림욕, 호수관광휴가 등 종합적인 관광을 제공한다.

늦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면 홍업곡관광지는 온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들인다.

다년간 홍업곡관광지는 교하시 당위와 정부의 지지와 성, 시 림업부문의 도움으로 관광 개발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 이미 22회 연속 중국·길림장백산단풍관광축제를 개최, '장백산 단풍' 브랜드를 구축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국가지리잡지에 의해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가을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2023년 11월, 홍업곡관광지의 관광객 접대 인수는 9만 2,000명으로 400만원의 관광수입을 올렸으며 전년 관광객 접대 인수는 17만 4,700명으로 관광수입 705만원을 올렸다.

/ 강성일보

## 교하, 자원 우세 발휘해 석재 순환경제 발전에 주력



길림성중길석재주식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최근년간 교하시는 자원 우세에 의거하여 석재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미 도입한 고급 판재 가공 기업은 연간 고급 석재 300만평방미터를 생

산 가공할 수 있으며 생산액 3억 4,000만원, 세금수입 2,000만원을 실현하고 500명의 취업을 이끌었다.

/ 길림일보

## 길화북방회사 전환승격 프로젝트 정제탑 완공

8월 4일, 천툰금 궤도달기 갑고리가 천천히 하강함에 따라 길화북방회사의 동부 형태 전환승격 프로젝트 C8 추출분리 스티렌(苯乙烯) 장치 정제탑 한대가 제자리에 들어섰다. 이로써 C8에서 스티렌 분리 장치를 추출한 9대의 탑기는 한달 동안에 모두 조립됐다.

이 장치는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총 9대의 탑기 설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3대는 대형 한도 초과 탑기이다.

이 회사 사업부는 건설공사 기간이 촉박하고 설치 공간이 협소하며 설비의 도착이 느리고 조립 난도가 높음 등 문제에 직면하여 배치를 강화하고 조립 방안을 최적화하며 안전기술 교류를 엄격히 진행함으로써 여러 탑기



가 손조롭게 조립되어 제자리에 놓이도록 확보했다.

C8 추출분리 스티렌 장치는 국내 선진적인 성숙된 기술을 채용, 현재 국

내 단일 추출 스티렌 생산능력이 가장 높은 장치로 조업후 길림석유화학회사의 부산물 자원 리용률을 높이고 제품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게 된다.

/ 송화강넷

## 조선족 로인 음악애호가들, 여름밤 음악회 개최

8월 8일 저녁 5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음악애호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름밤 음악회가 길림시 강만로 조선족 집거지 민속풍경거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음악회를 조직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활동기 부회장에 의하면 이번 행사가 참가한 50여명의 공연자들은

협회 로인대학 음악반 회원들이다. 회원들의 기악합주 <반달>, <고향의 봄>, 녀성독창 <산간의 봄은 좋아>, 통소독주 <양산도> 등 민속특색이 짙은 공연은 여름밤의 분위기를 식혀주는 문화의 향연으로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 길림석유화학, 질 제고로 효익 5.2억원 증대

올해 상반기에 길림석유화학회사는 형세를 연구판단하고 성장을 최적화하며 원가를 낮추어 루계로 5.2억원의 효익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기업 발전의 질을 한층 더 제고시켰다.

'질 제고, 효익 증대, 난관 돌파 행동'은 길림석유화학의 올해 중점 사업이다.

이 회사는 선후로 6차례의 특별회의를 소집해 13가지 유형의 282개 사업조치를 세분화하고 기업관리 승격 운행 목표 및 34가지 보증 조치를 제정하였는데 생산경영의 제반 분야를 포괄하였다. 지도보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질 제고와 효익 증대 월례회의제도를 구축하며 정책을 조율하여 2분기부터 주요 업무의 리운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다.

'사전 계산, 정확한 통제, 실시간 최적화, 동태 조정' 시장화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정유와 화학공업 생산의 일체적 최적화, 구내와 구외 자원 일체화 총괄, 국내외 시장 일체화 운영을 실시하고 품질 향상 및 효익 증대 난관 돌파를 심도있게 추진했다.

원유도관의 점검수리 등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충분한 량의 원유가 공장에 들어오도록 했으며 정유 장치의 고부하 안정적인 운영을 실현하여 가공률이 사상 가장 좋은 수

준을 창조하고 정제유의 총생산량과 수확률 모두 사상 가장 좋은 수준을 창조하였다.

시장 효익에 따라 에틸렌선(乙烯线) 장치의 점검수리 시간을 최적화하고 아크릴, 부틸렌글리콜, 방향탄화수소 등 효의 창출 장치의 부하를 제고하였다. ABS 장치의 부하를 동태적으로 최적화하고 스티렌, 부틸렌고무 등 제품을 동시에 증산 판매하며 제품 구조를 최적화했다.

원천적인 원가 인하여 중시를 돌리고 저가 수입 자원과 국내 저가 자원을 구매하여 구매 원가를 2,200만원 낮추었다.

나프타 구매의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원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완벽하여 에틸렌 원료, ABS 등 제품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었다.

계양 ABS 장치 응집건조단위 장애 회수 시스템 최적화 개조를 실시하여 효익을 770만원 증대시켰다. 정유의 에너지 소모 수준을 낮추어 효익을 700만원 높이고 열전기(热电) 연합생산을 최적화하여 송화강열전기공장의 저가 증기(蒸汽) 외부 인입으로 효익을 630만원 높였다.

물 소비는 전년 대비 171만톤, 증기 공장에 들어오도록 했으며 정유 장치의 고부하 안정적인 운영을 실현하여 가공률이 사상 가장 좋은 수

/ 강성일보